

지도자 및 교원_수기-20

학업중단 예방 사례 응모분야	
지도자 및 교원	학생
■	

사례명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선생님에게-			
응모자	학교	○○○○고등학교	성명	○○○
학업중단 위기원인	가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23.03.02.~’24.10.17. (2년간)			
참여 일자(기간)				

[지방에서 시작한 교직 생활]

지방 생활을 시작한 지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나는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높은 성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해서 오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다르게 다양한 실습 과목과 직업 교육이 강조되는 학교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학업 중단률은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높은 편이다. 평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지원해 오고 있지만, 학생들은 더 심각한 상황에 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나는 타지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다. 하지만 학생들은 나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고민을 안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보며,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

[2023년: 학업중단예방 업무를 마주하다]

사실, 학업 중단 예방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담임으로서, 우리 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다른 반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더라도 학교 전체의 문제는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나 학업 중단 예방 업무를 담당하게 된 순간, 나는 우리 반의 문제가 아닌, 우리 학교의 학업 중단률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첫 학기, 학업중단율이 가장 큰 원인 3가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가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학교 부적응이 대부분이었다. 원인 분석 후, 어떻게 해야 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고민 끝에 나는 학업중단 예방 연간 로드맵을 만들었고, 2023학년도부터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실행했다. 8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 의미 있는 경험을 쌓았지만, 아래 자세하게 적은 활동들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깊은 감동을 주었고,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을 위해 걱정 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

번호	사 업 추 진 내 용	추진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학교 부적응 프로그램													
1	우리 반이 최고야 - 학급 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급 이벤트				0		0			0			0
2	사제동행 텃밭 가꾸기- 주차장, 꿈꾸는 텃밭으로			0	0	0	0	0		0	0	0	0
3	꿈 찾기 프로젝트 - 포기하지마			0		0						0	
저소득층 학생 프로그램													
4	넓은 세상속에서 나의 진로 찾기					0		0			0		
5	행복 버스로 등교하기 - 위기관리 학생을 위한 버스 렌탈				0	0	0	0		0	0	0	0
불안정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6	마음 반창고 프로젝트 - 심리상담, 의료전문가의 연계									0		0	
7	엄마. 아빠 사랑해요 - 부모님과 함께 하는 윈데이 클래스						0					0	
8	멘토 - 멘티 사업 - 전국대회로 가는 길: 멘토링의 힘				0	0	0	0	0	0	0		

[학교 부적응 학생 프로그램 - 주차장, 꿈꾸는 텃밭으로]

꼭 작은 텃밭을 만들어 학생들과 함께 운영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나는 일을 너무 크게 만들어버렸다. 처음에는 주차장이 될 뻔한 학교 공터를 대표 텃밭으로 만드는 과정은 매우 힘들었다. 학생 안전과 주차 문제로 반대가 많았지만, 우리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을 보이자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공터를 텃밭으로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다. 처음에는 잡초와 쓰레기로 가득 찬 공간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학생들과 함께 삽과 괭이를 들고 땀을 흘리며 작업을 하다 보니, 우리의 열정이 점점 공간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후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과 함께 아침, 점심, 하교 시간대에 나누어 옥수수 텃밭을 가꾸었다. 이 조 구성은 교내 봉사 징계를 받은 학생들과 텃밭을 원하는 학생들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봉사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다시 참여할 기회를 얻었고, 중단 위기 학생들은 자연과의 소통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수확한 옥수수는 지역 노인복지센터에 기부되었고, 남은 옥수수는 학생들과 함께 썰 먹으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가장 뜻 깊었던 것은 농작물을 키우면서 학생들은 옥수수 껍질을 폐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인식하게 되었고, 환경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 학생의 제안으로 옥수수 껍질을 활용한 친환경 칫솔 제품을 개발하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 결과로 창업 아이템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 대회에서 1등을 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이 경험은 학생들에게 학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위기 학생들은 텃밭을 가꾸기 위해 학교에 나오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저소득층 학생 프로그램 - 넓은 세상속에서 나의 진로 찾기]

많은 사람들이 이 국제교류 활동의 필요성과 효과에 의구심을 표했으며, 재정적 지원과 언어 장벽 등 여러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외 경험이 힘든 친구들에게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친한 선생님들과 함께 국제교류 사업을 성공적으로 따내어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8주 과정인 '글로벌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동안 우리는 7주간 글로벌 일대일 버디 매칭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매일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시간 각자의 문화와 경험을 나누고, 언어 장벽을 허물며 우정을 쌓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 8주차에는 해당 학교의 학생들을 직접 만나러 가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 만남에서는 서로에게 선물을 전하며 마음을 나누고, 함께 수업을 듣는 경험을 통해 친밀감을 더욱 높였다. 이러한 경험은 그들에게 단순한 국제교류를 넘어서, 새로운 친구와의 소중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 몇 주가 지났지만, 매일 학교에 출석하고 수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국제교류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의 눈빛은 확연히 달라졌고, 이야기를 나누는 데서 느끼는 자부심이 뚜렷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며, 이 경험이 단순한 것이 아님을 다시 깨달았다.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누도록 계속 노력해야겠다.

[모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 행복 버스로 등교하기]

00에 거주할 때는 체감하지 못했지만, 지방에서는 아이들이 마을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잦아 무단 결석이나 지각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생들이 학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 셔틀 버스를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학부모와 교사, 지역 단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매일 정해진 경로를 따라 운행되는 버스는 학생들이 제 시간에 학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단, 무조건 위기 학생이라고 해서 지원하지는 않았다. 매달 출석 통계를 분석하여 가장 출결이 우수한 학생들 20명을 선정하여 운행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 시행 이후 학생들의 출석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학생들은 자발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학교 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처럼 '행복 버스로 등교하기' 프로젝트는 단순한 통학 수단 제공을 넘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불안정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 마음 반창고 프로젝트]

2023년 여름, 생활교육협의회 중 아이들의 팔에서 자해 흔적 및 문신을 발견하며 심각성을 느꼈다. 이러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마음 반창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고, 전문 의료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상담과 치료를 지원받기로 했다. 기관 측에서도 고등학교와의 MOU 협약 체결이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기쁜 마음으로 수락해 주셨다. 이 협약을 통해 학생 상담 서비스는 물론,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해당 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점이 큰 도움이 되었다. 몇 달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자해의 흔적과 문신들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보였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마음 반창고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해 방지 프로그램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제 이 주제는 학교 내에서 더 이상 금기가 아니며, 학생들은 마음을 나누고 치유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불안정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 전국상업경진대회로 가는 길: 멘토링의 힘]

멘토링을 통해 희망과 가능성을 심어주고자 매년 학업 중단 위기 학생 3명과 함께 영상 공모전에 도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집보다는 학교가 더 편안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초기에는 그들이 자신감을 잃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했지만, 아이디어를 모으고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점차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방과 후에도 자발적으로 남아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는 2년 연속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 성과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성장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다. 내년에는 나 혼자만이 아닌 전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려 한다. 각 그룹별로 멘토와 멘티를 매칭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을 나누고,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지고, 학교 전체의 분위기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2년간 그들의 아픔이 나를 변화시켰다]

매년 학기초, 아이들을 처음 만날 때는 눈빛에 무기력함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포기하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지게 된다. 멘토링과 상담을 통해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 역시 많은 것을 배운다. 타지에서 근무하는 나에게 걱정보다는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아이들이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아이들의 아픔이 나를 변화시킨 만큼, 나의 노력과 지원이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앞으로도 이러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희망과 가능성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 같이 걱정합시다.